

## 부산·경남지역 주부들의 혼례음식에 대한 인식과 전망

김경묘·신애숙\*·김경자\*\*

파라다이스 호텔 일식당

양산대학 호텔조리과\*

동아대학교 식품영양학과\*\*

### A Study on Cognition and Prospect of Wedding Food among Housewives in Busan and Kyungnam Area

Kim Kyong Myo, Shin Ae Sook\*, Kim Kyung Ja\*\*

*Japanese Restaurant, Paradise Hotel in Busan*

*Department of Hotel Culinary Arts, Yangsan College\**

*Department of Food & Nutrition, Dong-A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ttitude toward and practices of the wedding foods among housewives. Data were collected from 525 housewives living in areas of Busan and Kyungnam and analyzed by bivariate analyses. Most of the respondents were from Busan metropolitan area (77.9%) and in the age of thirties and forties (66.3%). About the occupation, 43.5% of them were full-time housekeepers and 34.7% were workers. The highest proportion was found in those completed the high school (49.3%), those with a monthly family income of a million won (44.2%), and those from the nuclear family type (66.9%). For the attitude toward the continuity of wedding foods, most respondents (52.1%) had an opinion that the practice of serving the traditional wedding foods should be disappeared in a near future. The respondents had a general attitude that procedures of wedding ceremony including wedding foods should be changed to reflect the degree of modernization. Also, they showed an attitude that one of the wedding ceremonial procedure, Pebaek, had to reflect the current custom. The kinds and the volume of wedding foods should be lessened so that the ceremonial procedure should be brief which included only the basic one. Most of the respondents preferred the basic one to the luxurious one. These attitudes toward and practices of wedding foods varied depending o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

Key words : Busan and Kyungnam area, housewives, traditional wedding foods.

#### I. 서론

출생에서 사망에까지 이르면서 사람이 치르게 되는 통과례는 시대와 문화권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민족 또한 이러한 통과

의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혼례를 인륜지대사라 하여 인간이 치루어야 할 통과 의례 중 가장 중요한 통과 의례로 생각하였다. 이에 우리 조상들은 혼례의 형식적 절차를 여타 통과 의례보다 훨씬 정중하고 복잡하며 엄격하게 규정하였다. 혼례에는 단일적 행사로 끝나는 다른 의례와는 달리 납채-문명-납길-납징-칭기-친영의 육례<sup>1)</sup>와 의혼-납채-납폐-친영<sup>2)</sup>의 사례 절차가 있었던 것이다.

혼례의 의례적 절차를 중요시 한 것만큼이나 조상들은 절차의 각 단계마다 그에 부합하는 의미를 담은 음식을 준비하였고, 이 음식을 우리는 '혼례음식'이라고 일컫는다. 혼례음식은 일상음식 및 다른 의례음식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조리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이다. 우선 인간이 치루는 통과 의례에는 신에게 감사드리는 제례적 요소보다 축제적 요소가 더욱 강하다<sup>3)</sup>. 따라서 조리상의 금기사항이 다른 통과 의례에 비해 적어 다양하고 풍성한 재료를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할 수 있어 우리음식의 발전에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혼례는 한 집안이 다른 고장의 타집안과 공동으로 치루는 의례이다. 따라서 집안간 고장간의 음식의 교환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조리가 탄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혼례의 중요성과 더불어 복잡한 것만큼 허례허식화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혼례문화를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여러 연구<sup>4-9)</sup>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점은 혼례음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일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혼례음식은 함께 즐기며 나누어 먹는 음식이라는 의례의 축제적 요소는 배제되고 절차상 형식에 치중하는 허례허식적 요소가 더욱 강조되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반적인 혼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을 연구한 것에 비하면 혼례음식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혼례음식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부산경남지역 주부들이 혼례음식관행과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에 이어 혼

례음식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혼례음식 및 혼례풍습의 발전에 관한 의식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부산·경남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부를 대상으로 혼례음식의 관행과 실천, 인식 및 앞으로의 전망에 관한 의식실태조사를 하였다. 2001년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3일간 30부의 설문지를 배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2001년 9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8일간 부산·경남에 거주하는 주부들에게 설문지 700부를 배포하여 본조사를 실시, 525부(회수율 75%)를 회수하였다.

### 2. 조사내용 및 자료분석

525부의 설문지를 SPSS WIN 10.0<sup>10)</sup>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 연령, 직업, 학력, 수입, 가족구성형태에 따른 혼례음식의 전수와 보존에 대한 견해, 혼례음식과 예식절차와의 관계, 폐백풍습 실행절차에 대한 견해, 현행 혼례풍습에 대한 견해,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혼례음식의 방향, 발전전망 등의 사항에 대한 견해는 T-test 및  $\chi^2$ -test로 분석하고 빈도와 백분율과 Pearson값으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부산·경남지역 20대 이상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혼례음식의 관행과 태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sup>11)</sup>.

전체 조사대상자중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주부가 77.9%,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주부가 22.1%이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34.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40대 31.8%, 20대 17.7%, 50대 이상이 16.0%를 차지하였다. 직업별로는 전업주부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Variables		N(%)
Area	Busan	409( 77.9)
	Kyungnam	116( 22.1)
Age (year)	20~29	93( 17.7)
	30~39	181( 34.5)
	40~49	167( 31.8)
	50 over	84( 16.0)
Occupation	Housewives	228( 43.5)
	Employed women	182( 34.7)
	Business women	38( 7.3)
	Others	76( 14.5)
Educational level	College and over	190( 36.5)
	High school	257( 49.3)
	Under middle school	74( 14.2)
Monthly family income (unit: ten thousands won)	Under 99	89( 17.8)
	100~199	221( 44.2)
	200~299	128( 25.6)
	300 over	62( 12.4)
Family type	Couple only	60( 11.5)
	Nuclear family	350( 66.9)
	Extended family	58( 11.1)
	Others	55( 10.5)
Total		525(100.0)

43.5%, 직장인이 34.7%로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고졸이 49.3%로 가장 많았고, 대졸이상이 36.5%를 차지하였다. 수입정도는 100만원대가 4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0만원대가 25.6%, 100만원 미만이 17.8%, 300만원이상이 12.4%를 차지하였다. 가족구성의 형태를 보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66.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부부만 사는 가족이 11.5%, 조부모나 부모를 모시고 사는 확대가족이 11.1%를 차지하였다.

## 2. 혼례음식과 예식절차와의 관계

Table 2는 부산, 경남지역 주부들이 혼례음식과 예식절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질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부산, 경남지역 주부들은 혼례음식과

예식절차와의 관계를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한다는 57.5%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너무 걸치레이다가 17.9%,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8.2%, 전통에 따라야 한다는 7.8%, 가정의례 준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4.4%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별, 학력별로 유의적인 차이( $p < 0.05$ )를 보였는데, 연령별로는 전반적으로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한다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나 특히 나이가 적을수록 혼례음식이나 예식절차 등이 걸치레라고 여기는 비율이 높아졌다. 학력별로는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한다는 4.4%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별, 학력별로 유의적인 차이( $p < 0.05$ )를 보였는데, 연령별로는 전반적으로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으나 특히 나이가 적을수록 혼례음식이나 예식절차 등이 걸치레라고 여기는 비율이 높아졌다. 학력별로는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한다는 4.4%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별, 학력별로 유의적인 차이( $p < 0.05$ )를 보였는데, 연령별로는 전반적으로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으나 특히 나이가 적을수록 혼례음식이나 예식절차 등이 걸치레라고 여기는 비율이 높아졌다. 학력별로는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한다는 4.4%로 나타났다.

## 3. 폐백풍습 실행 절차에 대한 견해

Table 3은 폐백풍습 실행 절차의 견해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부산·경남지역 주부들은 현시대에 맞아야 한다는 비율이 49.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양가 합계가 29.0%, 시댁의 풍습을 따라야 한다는 비율이 5.7%, 생략해야 한다는 10.1%, 옛 풍습처럼 시댁어른들만 폐백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1.5%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별, 수입정도별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별( $p < 0.01$ ), 직업별( $p < 0.05$ ), 가족구성별( $p < 0.01$ )로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시댁의 풍습에 따라야 한다는 비율이 높은 반면 양가 합계하는 것이 좋다는 비율은 20대가 상대적으로 높고, 생략해야 한다는 30대가 높으며, 현시대에 맞게 해야 한다는 비율은 40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직업별로는 전업주부가 생략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사업을 하는 주부는 현시대에 맞게 해야 한다는 비율이, 기타의 주부는 양가 합계 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는 부부만의 가족은 폐백은 생략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부부자녀와 기타의 가족이 현시대에 맞게 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확대가족이 양가 합계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2. Attitude toward procedure of the first introduction at wedding ritual Pebaek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Item	Stick to traditional practice	Need to adjust to cultural changes	Be on right track in trend of wedding ritual change	Luxurious practice	Force to apply ritual regulations more strictly	do not know	Total	Statistics
Age (year)	20~29	3( 3.2)	53(57.0)	1( 1.1)	26(28.0)	2( 2.2)	8(8.6)	93(100.0)	$\chi^2=53.186$ df=15 p=0.000 tau-c=0.100 ***
	30~39	6( 3.3)	111(61.3)	9( 5.0)	34(18.8)	14( 7.7)	7(3.9)	181(100.0)	
	40~49	23(13.8)	91(54.5)	21(12.6)	23(13.8)	5( 3.0)	4(2.4)	167(100.0)	
	50 over	9(10.7)	47(56.0)	12(14.3)	11(13.1)	2( 2.4)	3(3.6)	84(100.0)	
	Subtotal*	41( 7.8)	302(57.5)	43( 8.2)	94(17.9)	23( 4.4)	22(4.2)	525(100.0)	
Occupation	Housewives	20( 8.8)	132(57.9)	17( 7.5)	43(18.9)	7( 3.1)	9(3.9)	228(100.0)	$\chi^2=16.994$ df=15 p=0.319
	Emplied women	9( 4.9)	112(61.5)	15( 8.2)	33(18.1)	8( 4.4)	5(2.7)	182(100.0)	
	Business women	9( 7.9)	25(65.8)	4(10.5)	2( 5.3)	2( 5.3)	2(5.3)	38(100.0)	
	Others	9(11.8)	33(43.4)	7( 9.2)	16(21.1)	6( 7.9)	5(6.6)	76(100.0)	
	Subtotal	41( 7.8)	302(57.6)	43( 8.2)	94(17.9)	23( 4.4)	21(4.0)	524(100.0)	
Educational level	College over	6( 3.2)	118(62.1)	14( 7.4)	34(17.9)	12( 6.3)	6(3.2)	190(100.0)	$\chi^2=20.244$ df=10 p=0.027 tau-c=0.062
	High school	23( 8.9)	139(54.1)	22( 8.6)	52(20.2)	8( 3.1)	13(5.1)	257(100.0)	
	Under middle school	12(16.2)	41(55.4)	7( 9.5)	8(10.8)	3( 4.1)	3(4.1)	74(100.0)	
	Subtotal	41( 7.9)	298(57.2)	43( 8.3)	94(18.0)	23( 4.4)	22(4.1)	521(100.0)	
	Monthly family income (unit: ten thousands won)	~99	13(14.6)	49(55.1)	6( 6.7)	14(15.7)	3( 3.4)	4(4.5)	
100~199		16( 7.2)	135(61.1)	16( 7.2)	35(15.8)	10( 4.5)	9(4.1)	221(100.0)	
200~299		9( 7.0)	63(49.2)	15(11.7)	32(25.0)	5( 3.9)	4(3.1)	128(100.0)	
300 over		2( 3.2)	41(66.1)	6( 9.7)	10(16.1)	1( 1.6)	2(3.2)	62(100.0)	
Subtotal		40( 8.0)	288(57.6)	43( 8.6)	91(18.2)	19( 3.8)	19(3.8)	500(100.0)	
Family type	Only couple	1( 1.7)	35(58.3)	4( 6.7)	12(20.0)	3( 5.0)	5(8.3)	60(100.0)	$\chi^2=24.140$ df=15 p=0.063
	Nuclear family	34( 9.7)	202(57.7)	31( 8.9)	59(16.9)	14( 4.0)	10(2.9)	350(100.0)	
	Extended family	2( 3.4)	36(62.1)	5( 8.6)	13(22.4)	-	2(3.4)	58(100.0)	
	Others	3( 5.5)	28(50.9)	3( 5.5)	10(18.2)	6(10.9)	45(9.1)	55(100.0)	
	Subtotal	40( 7.6)	301(57.6)	43( 8.2)	94(18.0)	23( 4.4)	22(4.2)	523(100.0)	
Total**		41( 7.8)	302(57.5)	43( 8.2)	94(17.9)	23( 4.4)	22(4.2)	525(100.0)	

\*Subtotal may be different due to missing values.

\*\*Total may be different due to missing values for each item.

\*\*\*Tau-c is represent a coefficient to measure correlation between two interval variables.

#### 4. 현행 혼례풍습에 대한 견해

Table 4는 현행 혼례풍습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부산, 경남지역 주부들은 현행 혼례풍습에 대해 간소화하여야 한다고 44.6%로 가장 높았으며, 너무 걸치레이다가 27.0%, 너무 시댁위주이다가 16.5%, 적당하다가 7.9%로 나

타났다. 이는 연령별, 직업별, 학력별, 수입정도별, 가족구성별로 유의적인 차이(p<0.05)가 있었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너무 걸치레이다는 비율이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간소화하여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또 30~50대가 너무 시댁 위주라고 생각하고 있는 편이었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너무 걸치레라는

Table 3. Attitude toward procedure of the first introduction at wedding ritual Peback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Item	Obey to wedding practice by parents-in-law	Need to adjust to current custom of wedding	Only for parents of bridegroom as in traditional way	For parents of not only bridegroom but also bride	Need to skip	Do not know	Total	Statistics	
Age (year)	20~29	3( 3.2)	41(44.1)	2(2.2)	31(33.3)	7( 7.5)	9( 9.7)	93(100.0)	$\chi^2=32.527$ df=15 p=0.005 tau-c=0.106 ***
	30~39	3( 1.7)	91(50.6)	3(1.7)	50(27.8)	27(15.0)	6( 3.3)	180(100.0)	
	40~49	15(9.0)	89(53.3)	2(1.2)	44(26.3)	14(8.4)	3( 1.8)	167(100.0)	
	50 over	9(10.7)	39(46.4)	1(1.2)	27(32.1)	5( 6.0)	3( 3.6)	84(100.0)	
	Subtotal*	30( 5.7)	260(49.6)	8(1.5)	152(29.0)	53(10.1)	21( 4.0)	524(100.0)	
Occupation	Housewives	13( 5.7)	117(51.3)	2(0.9)	62(27.2)	29(12.7)	5( 2.2)	228(100.0)	$\chi^2=26.492$ df=15 p=0.033 tau-c=0.017
	Employed women	10( 5.5)	88(48.6)	4(2.2)	54(29.8)	18( 5.5)	7( 3.9)	181(100.0)	
	Business women	5(13.2)	21(55.3)	1(2.6)	8(21.1)	3( 7.9)	-	38(100.0)	
	Others	2( 2.6)	34(44.7)	1(1.3)	28(36.8)	3( 3.9)	8(10.5)	76(100.0)	
	Subtotal	30(5.7)	260(49.7)	8(1.5)	152(29.1)	53(10.0)	20( 3.8)	523(100.0)	
Educational level	College over	12( 6.3)	96(50.5)	2(1.1)	51(26.8)	21(11.1)	8( 4.2)	190(100.0)	$\chi^2=8.576$ df=10 p=0.573
	High school	14( 5.5)	126(49.2)	4(1.6)	73(28.5)	30(11.7)	9( 3.5)	256(100.0)	
	Under middle	3( 4.1)	36(48.6)	2(2.7)	27(36.5)	2( 2.7)	4( 5.4)	74(100.0)	
	School								
	Subtotal	29( 5.6)	258(49.6)	8(1.5)	151(29.0)	53(10.2)	21( 4.0)	520(100.0)	
Monthly family income (unit: ten thousands won)	~99	2( 2.2)	44(49.4)	1(1.1)	32(36.0)	4( 4.5)	6( 6.7)	89(100.0)	$\chi^2=21.371$ df=15 p=0.125
	100~199	12( 5.4)	111(50.2)	4(1.8)	59(26.7)	25(11.3)	10( 4.5)	221(100.0)	
	200~299	8( 6.3)	61(48.0)	1(0.8)	38(29.9)	18(14.2)	1( 0.8)	127(100.0)	
	300 over	8(12.9)	27(43.5)	1(1.6)	19(30.6)	6( 9.7)	1( 1.6)	62(100.0)	
	Subtotal	30( 6.0)	243(48.7)	7(1.4)	148(29.7)	53(10.6)	18( 3.6)	499(100.0)	
Family type	Only couple	2( 3.3)	28(46.7)	3(5.0)	12(20.0)	9(15.0)	6(10.0)	60(100.0)	$\chi^2=37.957$ df=15 p=0.001 tau-c=0.006
	Nuclear family	22( 6.3)	178(50.9)	4(1.1)	101(28.9)	37(10.6)	8( 2.3)	350(100.0)	
	Extended family	1( 1.8)	24(42.1)	1(1.8)	23(40.4)	4( 7.0)	-	57(100.0)	
	Others	-	28(50.9)	-	16(29.1)	3( 5.5)	7(12.7)	55(100.0)	
	Subtotal	30( 5.7)	258(49.4)	8(1.5)	152(29.1)	53(10.2)	21( 4.0)	522(100.0)	
Total**	30( 5.7)	260(49.6)	8(1.5)	152(29.0)	53(10.1)	21( 4.0)	524(100.0)		

\*Subtotal may be different due to missing values.

\*\*Total may be different due to missing values for each item.

\*\*\*Tau-c is represent a coefficient to measure correlation between two interval variables.

비율이 높았고, 학력이 낮을수록 간소화하여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직업별로는 전업주부가 너무 걸치레이다는 비율이 높았다. 가족구성별로는 부부만의 가족이 너무 걸치레이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확대가족이 간소화하여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보아 대체로 부부만의 가족에 대졸이상 전업주부가 현행 혼례풍습이 너무 걸치레라는 견해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앞으로의 혼례풍습 실행 절차에 대한 견해

Table 5는 부산·경남지역의 주부들의 앞으로의 혼례풍습 실행 절차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앞으로의 혼례풍습이 어떠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기본적인 것만 해도 된

Table 4. Attitude toward current custom of wedding ritual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Item	Too luxurious	Need to be simplified	Appropia te as it is	practices reflecting only bridegroom's perspective	Do not know	Others	Total	Statistics	
Age (year)	20~29	27(29.0)	36(38.7)	7( 7.5)	16(17.2)	7(7.5)	2(1.1)	93(100.0)	$\chi^2=28.046$ df=15 p=0.021 tau-c=0.029 ***
	30~39	55(30.4)	76(42.0)	10( 5.5)	35(19.3)	3(1.7)	-	181(100.0)	
	40~49	47(28.5)	76(46.1)	19(11.5)	25(12.1)	3(1.8)	1(1.2)	165(100.0)	
	50 over	12(14.5)	45(54.2)	5( 6.0)	15(18.1)	5(6.0)	-	83(100.0)	
	Subtotal*	141(27.0)	233(44.6)	41( 7.9)	86(16.5)	18(3.4)	3(0.6)	522(100.0)	
Occupatio n	Housewives	65(28.6)	101(44.5)	14( 6.2)	39(17.2)	7(3.1)	-	227(100.0)	$\chi^2=26.896$ df=15 p=0.030 tau-c=0.038
	Employed women	47(25.8)	84(46.2)	19(10.4)	31(17.0)	1(0.5)	1(0.4)	182(100.0)	
	Business women	7(18.9)	19(51.4)	2( 5.4)	6(16.2)	3(8.1)	-	37(100.0)	
	Others	21(28.0)	29(38.7)	6( 8.0)	10(13.3)	7(9.3)	2(2.7)	75(100.0)	
	Subtotal	140(26.9)	233(44.7)	41( 7.9)	86(16.5)	18(3.5)	3(0.6)	521(100.0)	
Education al level	College over High school	62(32.6)	69(36.3)	13( 6.8)	40(21.1)	5(2.6)	1(0.5)	190(100.0)	$\chi^2=13.365$ df=10 p=0.0204 tau-c=0.027
	Under middle School	63(24.8)	124(48.8)	21( 8.3)	36(14.2)	9(3.5)	1(0.4)	254(100.0)	
	School	16(21.6)	37(50.0)	7( 9.5)	10(13.5)	9(4.1)	1(1.4)	74(100.0)	
	Subtotal	141(27.2)	230(44.4)	41(7.9)	86(16.6)	17(3.3)	3(0.6)	518(100.0)	
Monthly family income (unit: ten thousands won)	~99	24(27.0)	40(44.9)	3( 3.4)	13(14.6)	7(7.9)	2(2.2)	89(100.0)	$\chi^2=20.542$ df=15 p=0.152
	100~199	60(27.4)	95(43.4)	18( 8.2)	40(18.3)	6(2.7)	-	219(100.0)	
	200~299	34(26.6)	59(46.1)	11( 8.6)	22(17.2)	2(1.6)	-	128(100.0)	
	300 over	17(27.9)	27(44.3)	7(11.5)	8(13.1)	2(3.3)	-	61(100.0)	
	Subtotal	135(27.2)	221(44.5)	39( 7.8)	83(16.7)	17(3.4)	2(0.4)	497(100.0)	
Family type	Only couple	20(33.3)	21(35.0)	5( 8.3)	8(13.3)	4(6.7)	2(3.3)	60(100.0)	$\chi^2=30.258$ df=15 p=0.011 tau-c=0.022
	Nuclear family	96(27.7)	152(43.8)	30( 8.6)	62(17.9)	7(2.0)	-	347(100.0)	
	Extended family	10(17.2)	34(58.6)	4( 6.9)	8(13.8)	2(3.4)	-	58(100.0)	
	Others	14(25.5)	25(45.5)	2( 3.6)	8(14.5)	5(9.1)	1(1.8)	55(100.0)	
	Subtotal	140(26.9)	232(44.6)	41( 7.9)	86(16.5)	18(3.5)	3(0.6)	520(100.0)	
Total**	141(27.0)	233(44.6)	41( 7.9)	86(16.5)	18(3.4)	3(0.6)	522(100.0)		

\*Subtotal may be different due to missing values.

\*\*Total may be different due to missing values for each item.

\*\*\*Tau-c is represent a coefficient to measure correlation between two interval variables.

다가 43.9%로 가장 높았으며, 혼인당사자가 의논해서 정한다가 29.4%, 변할 필요가 없다가 15.3%, 적당하다가 5.5%, 일생에 한번이라 화려해야 한다가 3.2%, 시댁의 풍습을 따라야 한다가 1.7%, 기타가 1.0%로 나타났다.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혼인당사자가 의논해서 정한다는 비율이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시댁의 풍습에 따른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전업주부가 혼인

당사자가 의논해서 정한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수입이 일정한 직장인들은 기본적인 것만 해도 된다는 비율이, 사업을 하는 주부는 일생에 한번이라 화려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인 혼인당사자가 의논해서 정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중졸이하가 기본적인 것만 해도 된다는 비율이 높았다. 수입정도별로는 100만원미만인 자가 기본적인 것만 해도 된다는 비율이 높으며, 100만원대가 혼

Table 5. Attitude toward future custom of wedding rituals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Item		Need to be more luxurious	Enough to be stick to the basic	Appropri- ate as it is	Need to be rearranged	Better to obey to bridegroom's custom	Negotiable	Others	Total	Statistics
Age (year)	20~29	4(4.3)	43(46.2)	4(4.3)	15(16.1)	1(1.1)	25(26.9)	1(1.1)	93(100.0)	$\chi^2=22.150$ df=18 p=0.225
	30~39	7(3.9)	73(40.3)	6(3.3)	29(16.0)	-	64(35.4)	2(1.1)	181(100.0)	
	40~49	6(3.6)	69(41.6)	14(8.4)	26(15.7)	5(3.0)	44(26.5)	2(1.2)	166(100.0)	
	50 over	-	45(53.6)	5(6.0)	10(11.9)	3(3.6)	21(25.0)	-	84(100.0)	
	Subtotal*	17(3.2)	230(43.9)	29(5.5)	80(15.3)	9(1.7)	154(29.4)	5(1.0)	524(100.0)	
Occupation	Housewives	6(2.6)	98(43.2)	10(4.4)	35(15.4)	4(1.8)	74(32.6)	-	227(100.0)	$\chi^2=21.302$ df=18 p=0.264
	Employed women	4(2.2)	86(47.3)	15(8.2)	27(14.8)	3(1.6)	45(24.7)	2(1.1)	182(100.0)	
	Business women	2(5.3)	13(34.2)	2(5.3)	6(15.8)	2(5.3)	12(31.6)	1(2.6)	38(100.0)	
	Others	5(6.6)	32(42.1)	2(2.6)	12(15.8)	-	23(30.3)	2(2.6)	76(100.0)	
	Subtotal	17(3.3)	229(43.8)	29(5.5)	80(15.3)	9(1.7)	154(29.4)	5(1.0)	523(100.0)	
Educational level	College over High school	4(2.1)	67(35.3)	15(7.9)	33(17.4)	3(1.6)	66(34.7)	2(1.1)	190(100.0)	$\chi^2=15.318$ df=12 p=0.225
	Under middle School	9(3.5)	124(48.4)	11(4.3)	38(14.8)	4(1.6)	68(26.6)	2(0.8)	256(100.0)	
	School	4(5.4)	37(50.0)	2(2.7)	9(12.2)	2(2.7)	19(25.7)	1(1.4)	74(100.0)	
	Subtotal	17(3.3)	228(43.8)	28(5.4)	80(15.4)	9(1.7)	153(29.4)	5(1.0)	520(100.0)	
Monthly family income (unit: ten thousands won)	~99	3(3.4)	48(53.9)	3(3.4)	8(9.0)	2(2.2)	24(27.0)	1(1.1)	89(100.0)	$\chi^2=17.342$ df=18 p=0.500
	100~199	6(2.7)	82(37.3)	13(5.9)	35(15.9)	5(2.3)	77(35.0)	2(0.9)	220(100.0)	
	200~299	4(3.1)	58(45.3)	8(6.3)	24(18.8)	-	33(25.8)	1(0.8)	128(100.0)	
	300 over	3(4.87)	30(48.4)	3(4.8)	11(17.7)	1(1.6)	14(22.6)	-	62(100.0)	
	Subtotal	16(3.2)	218(43.7)	27(5.4)	78(15.6)	8(1.6)	148(29.7)	4(0.8)	499(100.0)	
Family type	Only couple	1(1.7)	22(36.7)	5(8.3)	8(13.3)	-	23(38.3)	1(1.7)	60(100.0)	$\chi^2=11.747$ df=18 p=0.860
	Nuclear family	11(3.2)	158(45.3)	19(5.4)	56(16.0)	6(1.7)	96(27.5)	3(0.9)	349(100.0)	
	Extended family	3(5.2)	26(44.8)	4(6.9)	9(15.5)	1(1.7)	15(25.9)	-	58(100.0)	
	Others	2(3.6)	24(43.6)	1(1.8)	6(10.9)	2(3.6)	19(34.5)	1(1.8)	55(100.0)	
	Subtotal	17(3.3)	230(44.1)	29(5.6)	79(15.1)	9(1.7)	153(29.3)	5(1.0)	522(100.0)	
Total**		17(3.2)	230(43.9)	29(5.5)	80(15.3)	9(1.7)	154(29.4)	5(1.0)	524(100.0)	

\*Subtotal may be different due to missing values.

\*\*Total may be different due to missing values for each item.

인당 사자가 의논해서 정한다가, 200만원대는 변할 필요가 없다는 비율이 높았고 300만원이상이 일생에 한번이라 화려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사이의 앞으로의 혼례풍습 실행 절차에 대한 견해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족구성별로는 부부만 구성된 집단은 혼인 당사자가 의논해서 정한다는 비율이, 부부자녀의 핵

가족은 기본적인 것만 해도 된다는 비율이, 확대가족은 일생에 한번이라 화려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6. 혼례풍습과 혼례음식의 중요 순위에 대한 견해

Table 6은 혼례풍습과 혼례음식의 중요 순위에 대한 견해의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부산·경남지역의

Table 6. The Ranking of Wedding custom and wedding food

Item	Wedding food(rice cake etc.)	Pabaek food	Sinhaeng food(sided ishes)	Ebaeg food	Wedding gift	Yeidan	Congratulators numbers	Wedding hall	Wedding date	Others	Total	Statistics
Age (year)												
20~29	5( 8.3)	2( 3.3)	2(3.3)	8(13.3)	4(6.7)	6(10.0)	3(5.0)	2(3.3)	23(38.3)	5( 8.3)	60(100.0)	$\chi^2=43.942$ df=27
30~39	62(17.9)	22( 6.3)	12(3.5)	69(19.9)	17(4.9)	13( 3.7)	20(5.8)	8(2.3)	91(26.2)	33( 9.5)	347(100.0)	p=0.021
40~49	8(13.8)	6(10.3)	4(6.9)	8(13.8)	2(3.4)	5( 8.6)	-	1(1.7)	17(29.3)	7(12.1)	58(100.0)	tau-c=0.009
50 over	2( 3.6)	8(10.3)	1(1.8)	11(20.0)	3(5.5)	1( 1.8)	2(3.6)	-	14(25.5)	13(23.6)	55(100.0)	***
Subtotal*	77(14.8)	38( 7.3)	19(3.7)	96(18.5)	26(5.0)	25( 4.8)	25(4.8)	11(2.1)	145(27.9)	58(11.2)	520(100.0)	
Housewives	4( 4.3)	2( 2.2)	2(2.2)	21(22.8)	5(5.4)	5( 5.4)	5(5.4)	2(2.2)	28(30.4)	18(19.6)	92(100.0)	$\chi^2=45.037$ df=27
Employed women	29(10.0)	11( 6.1)	4(2.2)	44(24.3)	10(5.5)	7( 3.9)	8(4.4)	4(2.2)	49(27.1)	15( 8.3)	181(100.0)	p=0.016
Business women	36(21.8)	17(10.3)	9(5.5)	21(12.7)	7(4.2)	6( 3.6)	7(4.2)	3(1.8)	45(27.3)	14( 8.5)	165(100.0)	tau-c=0.075
Others	8( 9.5)	8( 9.5)	4(4.8)	11(13.1)	4(4.8)	7( 8.3)	5(6.0)	2(2.4)	24(28.6)	11(13.1)	84(100.0)	
Subtotal	77(14.8)	38( 7.3)	19(3.6)	97(18.6)	26(5.0)	25( 4.8)	25(4.8)	11(2.1)	146(28.0)	58(11.1)	522(100.0)	
College over												
High school	31(16.4)	9( 4.8)	5(2.6)	35(18.5)	10(5.3)	9( 4.8)	9(4.8)	2(1.1)	59(31.2)	20(10.6)	189(100.0)	$\chi^2=22.882$ df=18
Under middle school	39(15.3)	9( 3.5)	9(3.5)	53(20.8)	10(3.9)	8( 3.1)	10(3.9)	6(2.4)	70(27.5)	30(11.8)	255(100.0)	p=0.195
School	7( 9.5)	3( 4.1)	3(4.1)	9(12.2)	5(6.8)	8(10.8)	6(8.1)	3(4.1)	17(23.0)	7( 9.5)	74(100.0)	
Subtotal	77(14.9)	17( 3.3)	17(3.3)	97(18.4)	25(4.8)	25( 4.8)	25(4.8)	11(2.1)	146(28.2)	57(11.0)	518(100.0)	
Monthly family income (unit:ten thousands won)												
~99	11(12.5)	8( 9.1)	3(3.4)	15(17.0)	3(3.4)	2( 2.3)	6(6.8)	1(1.1)	23(26.1)	16(18.2)	88(100.0)	$\chi^2=28.004$ df=27
100~199	32(14.5)	11( 5.0)	9(4.1)	45(20.4)	16(7.2)	11( 5.0)	12(5.4)	7(3.2)	58(26.2)	20( 9.0)	221(100.0)	p=0.411
200~299	20(15.9)	10( 7.9)	3(2.4)	23(18.3)	3(2.4)	7( 5.6)	5(4.0)	2(1.6)	40(31.7)	13(10.3)	126(100.0)	
300 over	15(22.6)	4( 6.5)	3(4.8)	10(16.1)	2(5.3)	-	-	1(1.6)	21(33.9)	7(11.3)	2(100.0)	
Subtotal	77(15.5)	33( 6.6)	18(3.6)	93(18.7)	24(4.8)	20( 4.0)	23(4.6)	11(2.2)	142(28.6)	56(11.3)	497(100.0)	
Only couple	40(17.6)	23(10.1)	9(4.0)	30(13.2)	10(4.4)	13( 5.7)	6(2.6)	8(3.5)	62(27.3)	26(11.5)	227(100.0)	$\chi^2=51.878$ df=27
Nuclear family	22(12.1)	7( 3.8)	7(3.8)	45(24.7)	10(5.5)	4( 2.2)	10(5.5)	1(0.5)	59(32.4)	17( 9.3)	182(100.0)	p=0.003
Extended family	8(21.1)	2( 5.3)	2(5.3)	8(21.1)	-	1( 2.6)	5(13.2)	1(2.6)	10(26.3)	1( 2.6)	38(100.0)	tau-c=0.037
Others	7( 9.5)	1( 1.4)	1(1.4)	14(18.9)	6(8.1)	7( 9.5)	4(2.2)	1(1.4)	15(20.3)	14(18.9)	74(100.0)	
Subtotal	77(14.8)	19( 3.6)	19(3.6)	97(18.6)	26(5.0)	25( 4.8)	25(4.8)	11(2.1)	146(28.0)	58(11.1)	521(100.0)	
Total**	77(14.8)	19( 3.6)	19(3.6)	97(18.6)	26(5.0)	25( 4.8)	25(4.8)	11(2.1)	146(27.8)	58(11.1)	521(100.0)	

\*Subtotal may be different due to missing values.

\*\*Total may be different due to missing values for each item.

\*\*\*Tau-c is represent a coefficient to measure correlation between two interval variables.



Table 7. Attitude toward prospect of wedding food and wedding custom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Item	Be				Be fair to reflect	Others	Total	Statistics
	traditional	modernized	luxurious	simplified	perspectives of both bride and bridegroom's			
Age (year)	20~29	3( 3.2 )	26(28.0)	1(1.1)	38(40.9)	21(22.6)	4(4.3)	93(100.0)
	30~39	3( 1.7 )	65(36.1)	-	85(47.2)	25(13.9)	2(1.1)	180(100.0)
	40~49	15( 9.0 )	52(31.1)	1(0.6)	66(39.5)	33(19.8)	-	167(100.0)
	50 over	3( 3.6 )	19(22.6)	-	40(47.6)	21(25.0)	1(1.2)	84(100.0)
	Subtotal*	24( 4.6 )	162(30.9)	2(0.4)	229(43.7)	100(19.1)	7(1.3)	524(100.0)
Occupation	Housewives	10( 4.4 )	65(28.6)	-	111(48.9)	40(17.6)	1(0.4)	227(100.0)
	Employed women	9( 4.9 )	61(33.5)	1(0.5)	77(42.3)	33(18.1)	1(0.5)	182(100.0)
	Business women	1( 2.6 )	16(42.1)	-	15(39.5)	6(15.8)	-	38(100.0)
	Others	4( 5.3 )	20(26.3)	1(1.3)	26(34.2)	20(26.3)	5(6.6)	76(100.0)
	Subtotal	24( 4.6 )	162(31.0)	2(0.4)	229(43.8)	99(18.9)	7(1.3)	523(100.0)
Educational level	College over	62(32.6)	69(36.3)	13(6.8)	40(21.1)	5( 2.6)	1(0.5)	190(100.0)
	High school	63(44.7)	124(48.8)	21(8.3)	36(14.2)	9( 3.5)	1(0.4)	254(100.0)
	Under middle School	16(21.6)	37(50.0)	7(9.5)	10(13.5)	3( 4.1)	1(1.4)	74(100.0)
	Subtotal	141(27.2)	230(44.4)	41(7.9)	86(16.6)	17( 3.3)	3(0.6)	518(100.0)
Monthly family income (unit: ten thousands won)	~99	3( 3.4 )	19(21.3)	1(1.1)	35(39.3)	28(31.5)	3(3.4)	89(100.0)
	100~199	5( 2.3 )	78(35.5)	-	97(44.1)	37(16.8)	3(1.4)	220(100.0)
	200~299	6( 4.7 )	31(24.2)	-	68(53.1)	23(18.0)	-	128(100.0)
	300 over	8(12.9)	25(40.3)	1(1.6)	19(30.6)	8(12.9)	1(1.6)	62(100.0)
	Subtotal	22( 4.47)	153(30.7)	2(0.4)	219(43.9)	96(19.2)	7(1.4)	499(100.0)
Family type	Only couple	1( 1.7 )	20(33.3)	-	28(46.7)	10(16.7)	1(1.7)	60(100.0)
	Nuclear family	16( 4.6 )	108(30.9)	1(0.3)	160(45.8)	61(17.5)	3(0.9)	349(100.0)
	Extended family	21( 3.4 )	18(31.0)	-	26(44.8)	12(20.7)	-	58(100.0)
	Others	4( 7.3 )	15(27.3)	1(1.8)	15(27.3)	17(30.9)	3(5.5)	55(100.0)
	Subtotal	23( 4.4 )	161(36.8)	2(0.4)	229(43.9)	100(19.2)	7(1.3)	522(100.0)
Total**	24( 4.6 )	162(30.9)	2(0.4)	229(43.7)	10(19.1)	7(1.3)	524(100.0)	

\*Subtotal may be different due to missing values.

\*\*Total may be different due to missing values for each item.

\*\*\*Tau-c is represent a coefficient to measure correlation between two interval variables.

주부들은 전반적인 혼례풍습 중 가장 중요한 것을 결혼식과 결혼날짜에 두어 2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손님초대음식 등의 이바지음식이 18.6%, 떡 등의 혼례음식이 14.8%, 기타가 11.1%, 폐백음식이 7.3%, 결혼예물이 5.0%, 예단과 축하객의 규모가 4.8%, 반찬류의 신행음식이 3.6%, 결혼장소가 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별, 수입

정도별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별, 직업별, 가족구성별로는 유의적인 차이( $p < 0.05$ )를 보였는데, 연령별로는 20대는 결혼시기와 날짜에, 30대는 떡 등의 혼례음식, 40대는 예단에, 50대는 손님초대음식과 이바지음식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직업별로는 전업주부는 결혼시기와 날짜에, 직장인은 손님초대음식 등 이바지음식에, 사업을 하는

주부는 떡 등의 혼례음식에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가족구성별로는 부부만의 가족은 폐백음식에, 부부자녀의 가족은 결혼시기와 날짜에 확대가족은 떡 등의 혼례음식에 높은 비율을 보였다.

#### 7. 혼례음식과 혼례풍습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Table 7은 부산·경남지역의 주부들의 혼례음식과 혼례풍습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한 견해를 나타낸 표이다. 전반적으로 혼례음식과 풍습을 간소화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43.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현대감각에 맞추어야 한다는 응답이 30.9%, 양가 공평해야 한다는 응답이 19.1%, 전통적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4.6%, 기타가 1.3%, 더욱 화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0.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별( $p < 0.05$ ), 수입정도별( $p < 0.001$ )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는데, 직업별로는 전업주부는 간소화하여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고 사업을 하는 주부는 현대감각에 맞추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아 상대적인 차이를 보였다. 수입정도별로는 대체로 수입이 높을수록 현대감각에 맞추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수입이 낮을수록 간소화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높고 양가 공평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I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의 전통혼례음식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의 일환으로서 부산, 경남지역 주부들의 혼례음식에 대한 관행 및 견해를 조사한 것이다. 응답한 525부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는 부산지역 주부들이 77.9%, 경남지역주부들이 22.1%이었으며, 30대가 34.5%, 40대가 31.8%를 차지하였고, 전업주부가 43.5%, 직장인이 34.7%, 고졸이 49.3%, 수입정도는 100만원대가 44.2%, 핵가족의 구성이 66.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 혼례음식의 전수와 보존에 대한 견해는 조금씩 사라질 것이다가 52.1%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 직업별로는 직장인, 학력별로는 대졸이상, 수입정도별로는 100만원대, 가족구성별로는 부부자녀의

가족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

3. 혼례음식과 예식절차와의 관계에 대한 견해는 시대에 따라 변해야 된다가 57.5%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 직업별로는 사업을 하는 주부, 학력별로는 대졸이상, 수입정도별로는 100만원대, 가족구성별로는 확대가족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

4. 폐백풍습 실행 절차에 대한 견해는 현시대에 맞아야 한다는 응답이 49.6%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 직업별로는 사업을 하는 주부, 학력별로는 대졸이상, 수입정도별로는 100만원대, 가족구성별로는 부부자녀의 주부가 높은 수치를 보였다.

5. 현행 혼례풍습에 대한 견해는 현행 우리의 혼례음식에 대한 견해와 마찬가지로 간소화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44.6%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50대, 직업별로는 사업을 하는 주부, 학력별로는 중졸이하, 수입정도별로는 200만원대, 가족구성별로는 확대가족의 주부가 높은 수치를 보였다.

6. 혼례풍습 실행 절차에 대한 견해는 기본적인 것만 해도 된다가 43.9%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50대, 직업별로는 직장인, 학력별로는 중졸이하, 수입정도별로는 100만원미만, 가족구성별로는 부부자녀의 주부가 높은 수치를 보였다.

7. 혼례음식과 혼례풍습의 중요 순위에 대한 견해는 결혼시기와 날짜에 27.8%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직업별로는 전업주부, 학력별로는 대졸이상, 수입정도별로는 300만원이상, 가족구성별로는 부부자녀의 주부가 높은 수치를 보였다.

8. 혼례음식과 혼례풍습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한 견해는 간소화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43.7%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50대, 직업별로는 전업주부, 학력별로는 대졸이상, 수입정도별로는 200만원대, 가족구성별로는 부부만의 주부가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1997년 “우리나라 혼례음식 인지도에 관한 조사연구”에서는 폐백음식의 인지도가 혼례음식의 인지도 보다 높은 편<sup>12)</sup>이었으나 2001년 현재는 폐백음식 보다 혼례음식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원인으로는 IMF 전후인 1997년에는 일부 계층의 부의 과시처럼 혼례음식을 준비하는 경향이 이루어져 극도로 사치화 하는 혼례음식에 대

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었지만 1999년 1월 6일자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므로 인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우리의 혼례음식 또한 그와 더불어 더욱 고급화, 허례허식화 된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아직도 현 시대에 맞는 적합한 모델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고 혼례가 사라지지 않는 한, 혼례음식 또한 혼례풍습과 함께 이어져 나갈 것은 확연한 사실이므로 우리는 현 시대에 맞는 적합한 모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혼례음식이 가지는 기복의 의미를 되살리고 혼례음식을 준비하는 우리의 주부들의 사회,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전통을 살릴 수 있는 모델의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혼례음식과 풍습은 첫째, 시대에 알맞으면서 간편하고 손쉽게 만들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양가집안의 인사이므로 정성껏 하되 존중하는 예의가 표현되어야 하며 셋째, 신부와 신랑이 이루는 새로운 가정에 화목의 의의가 내포될 수 있는 음식이어야 한다고 제언하고 싶다.

## V. 문헌

1. Kim SJ(2000): 韓國傳統家庭儀禮, p69, Hakmun Publishing Co., Seoul.
2. Lee J(1992): 四禮便覽(Korean), Ehwa Culture Co.
3. Kang IH(1996): Korean Rite of Passage Food, Korean J Dietary Culture 11(4):541.
4. Lee HG(1997): Wedding Food Culture in Seoul and Middle Area, J Korean Soc. Food Culture 12(2): 230.
5. Kim MN, Lee JW(1999): Wedding Consciousness, Behavior and Satisfaction of the Urban Housewives, J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 37(6) : 41-57.
6. Kim SS, Sea BS(1997): Impacts of Social Class, Materialism and Conspicuous Consumption on the Marriage Behavior Women in the Middle Class, J of the Korea Home Economics Assoc 37(9) :25.
7. Jang EY(1990): A study on Practices of Wedding gift among Housekeepers in an urban area, unpublished master theses, Chungang University, p46-60.
8. Choir KS(1995): A study on Practices of Physical goods exchanges and Wedding ritual procedure-Focus on a case of an urban middle class-, Unpublished master theses, Ehwa Women's University, p3-91.
9. Lee SY(1992): A Study on Behavior and Cognition of Wedding rituals-among married couples living in Seoul, Unpublished master theses, Sungsin Women's University, p14-38.
10. SPSS Base 7.5 for Windows(1997): User's Guide. Spss Inc.
11. Kim KM, Shin AS, Kim KJ(2002): A Survey on Practices and Attitude toward Wedding Food among Housewives in Busan and Kyungnam Area., J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Culture 17(3):240.
12. Chung HK, Seon KH, Youn SK(1997): A Study on Acknowledgement of Wedding Food, J Korean Soc of Food Culture 12(4) : 286.